

1993년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가 서울 관객 1백만을 돌파하는데 여섯 달 걸렸다. 그러나 '실미도'는 일주일, '태극기 휘날리며'는 5일 만에 전국 2백만 관객을 돌파했다. 10년 동안 한국영화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관객 점유율 15%의 한국영화가 50%대로 뛰어 올랐으며,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던 서울 개봉권 숫자가 2백여개 이상으로 늘어났는가, 그리고 사상산업으로 인식되던 영화산업에 대규모 자본이 밀려드는가, 우리는 설명해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하재봉
문화평론가

'대박' 영화의 허와 실

것도 분명하다. 전성 시대는 세계 최강 할리우드의 기술진들이 총동원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화면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한국영화사상 최대의 제작비인 148억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톱 톱스 한 사람의 출연료보다도 적다. '쉬리' 이후 한국 영화는 대박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투자 자본의 회수 과정이 빠르고, 성공하면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화 산업은, 벤처기업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다. 지금 한국 영화는 기획 제작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전단계가 체계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기업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수용자와의 행복한 소통에 성공한 다른 대중 문화가 그렇듯이 '실미도'나 '태극기 휘날리며'의 흥행 요인도 복합적이다. 한국 현대사의 감춰진 부분이 드라마로서 표현되었다거나, 한국전쟁이라는 소재에서 이데올로기를 탈색시키고 형제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대답한다면, 참으로 단순한 시각이다. 물론 국가라는 거대조직에 버림받은 실미도 부대원들을 통해 각자 왜소한 개인으로서 조직에 상처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관객들은, 자기동일시의 마취작용에 빠지게 된다. 어쩌면 이것은 '실미도' 흥행의 핵심 요인이었다.

큰 문화예술 분야로 옮겨졌던 고급 인력이 영화계로 유입되고, 전국 50여개 대학에 설립된 영상 관련학과와 영상원 등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적 자원은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흥행에 성공한다고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예술로서의 영화가 아닌, 대중적 선전선동에 능수 능란한 재능을 갖고 있는 감독들이 영민하게 대중들의 성감대를 건드리면서 제작하는 영화들이다. 그런 영화들의 상당수는 천박하고, 감성의 유효기간은 극히 짧다. 그래서 치고 빠지는 마케팅을 동원한다. 언론매체를 비롯해서 홍보에 대규모 불량공세를 투입하여 작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의 많은 극장을 잡아 한꺼번에 개봉하여 단기간에 많은 관객을 동원하려는 '와이드 릴리즈' 전략은, 이런 상업영화의 필수적 마케팅이다.

관객 1천만 시대를 맞은 지금, 우리는 다양한 영화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빠지면서 순식간에 영화산업은 쇠퇴해 질 수 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세계는 지금 불교에 주목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미래 인류의 종교심을 충분히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한국불교 선, 화엄, 법华的 역사와 전통은 현대세계 불교의 중심에 자리매김 될 수월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불교권 국가 가운데 한국불교의 세계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서구권에서 떠올리는 불교는 티베트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일본이다. 티베트와 동남아 불교는 19세기부터 서구 학계가 직접 연구에 참여했고, 같은 시기 일본은 자력으로 서구사회에 일본 불교 알리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때늦은 감 없지 않으나 조계종에서 국제 업무를 전담할 부서 신설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교계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외에 세워진 한국 사찰의 수도 130여 곳에 이르며, 한국에 와서 스님이 된 외국인 수도 1백 명이 넘는다. 종단마다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고,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국제

세계화, '인지도' 먼저 높이자

포교사도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찰의 신도나 포교사의 포교 대상이 한국교포에 머문다면 여기에 세계화라는 이름 붙이기가 어렵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불교학의 세계인지도가 극히 낮다는 것이다. 서구의 불교학은 지금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방대한 문헌자료와 연구물들을 토대로 하루가 다르게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의 학문적 기초를 제공하는 한국 불교에 대한 자료는 서구 어느 도서관의 인덱스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불교학 자료의 영어 등 외국어로의 적극적인 번역과 소개 작업이 그동안 소홀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외국어로 된 한국불교학의 풍부한 인덱스는 곧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교학적 인프라다. 세계의 도서관에 한국불교학 인덱스가 잘 갖추어지면 무엇보다 번역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수한 불교학 번역가 양성과 외국 출판사와의 연계 등이 이를 해결할 지름길일 것이다.

조계종에서 새로 신설될 국제전담부서는 아주 긴 호흡의 준비, 적어도 1세기정도의 장기적 계획과 실천으로 세계 속에 한국불교학이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일해 주기를 당부한다.

■ 김장자(연문)

이렇게 들었다 '팔경법'을 넘어

"나는 12년 동안 여인의 모습을 찾았지만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비유컨대 미술사가 환상으로 여자의 몸을 만든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면, 옳은 질문이겠습니까?" <유마경>

<유마경>의 관중생품(觀衆生品)은 중생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것을 권고한 후, 사리불로 하여금 분별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천녀의 설법을 담고 있다. 위의 대답은 '여자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가?' 하는 사리불의 질문에 대한 천녀의 답이다. 이는 "나의 아누다라삼마삼보리에겐 조그만 법도 얻을 수 없게 이룸하여 아누다라삼마삼보리라 한다"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상통한다.

<유마경>과 <금강경>이 이른바 '여성즉신성불론(女性即身成佛論)'의 입장이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팔경법(八敬法)'이나 '오장설(五障說)'이 있다. 100세 비구니라든가 조계한 비구에게 예경해야 하고, 여자는 범천왕이나 부처 등이 될 수 없는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자도 몸을 바꾸어 성불한다'는 '변신성불론(變身成佛論)'이 있다. 부처님의 평등사상과 모순됨을 인정하는 교리적 고백인 셈이다.

남녀평등에 대한 불교교단의 문제의식은 이처럼 연원이 깊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16일 '선우노강'의 비구니·비구의 위상정립에 대한 논의는 새삼스럽다. '팔경법은 원점에서 무효화해야 한다(법인 스님)'는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 "세간의 법으로 출세간의 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혜능 스님)"는 주장도 원론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할 일은, 남녀평등의 구체적 방안을 찾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 윤재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이렇게 생각한다

"'주5일근무제'가 올해 불교 성패 좌우할 듯"

불교계는 올해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위 사찰은 오는 7월부터 1천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 예정인 '주5일제'와 관련, 사찰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호응을 받을 것인지 가능해보는 한 해이자 적응을 위한 연습의 한해가 될 것이다.

사찰은 향후 1~3년 기간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3의 경쟁상대에 자기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될 확률이 높다.

올해는 또 조계종 종단개혁 10주년을 맞는 해지만 1998~99년 사태의 여진이 아직도 미분명 상태로 있고, 위 사태로 인해 능동적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해 유연한 변화를 도모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떠밀리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때일수록 자기 자신과 우리 내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 안에서 긍정적 변화의 힘을 축적해야 한다.

불교계 주요종단의 신년사업계획은 그 무슨 건립 불사가 압도하고 있다.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지원센터'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3개년에 걸쳐 세울 것이라고 발표했고, 태고종도 '불교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하고, 천태종은 구인사에 1백억을 들여 유물전시관을 짓겠다고 했으며, 진각종은 흥보산 성역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센터'든 '전시관'이든 '총본산'이든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갈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 수급하기 위한 '불사' 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재 발굴 및 확보 능력에 따라 교단(사찰 및 단체)의 번익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종국에는 20:80(상위 20%가 나머지 80%를 커버하는)이라고 하는 '개미의 법칙'이 불교계에도 현실화 될 개연성이 크다.

2003년 불교계 활동으로 가장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단연 환경운동이었다. 북한산관동터널 공사 반대, 새만금 삼보일배, 천성산 관동터널 반대운동 등은 2003년도 가장 큰 환경 이슈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것들이 불교계 내부의 자정과 자기성찰적인 자세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사회적 공공선의 이슈에 참여해 더러워도 그것이 왜곡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불교인 각자 자기 자신의 변화, 기성제도교단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공동체의 변화, 시민사회공동체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윤남익 /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격월간 참여불교 1·2월호 기고문 요약)

독자 시

산속의 대중공양

비문에 새겨진 날마다 불빛을 자손들 이름 빛속에 더욱 선명하다 비에 젖어 축축한 풀잎 위에 얹드려 2배, 2배 올리고 피등을 켜어본다 가시 역전 땅끝에 질타처럼 엮여 있어 근근이 당기는데 붉은 피 솟아 두 어르신 피로써 맹세하고 가라 하신 듯 그 뜻 헤아려본다

축배나무 몇 그루와 소나무 임잉대는 바람뿐인 산속 가는 것들과 나는 것들 모두에게 슬과 과일과 땅콩을 뿌린다 서 풍저리 공양 쪼르르 밀어내고 살그림 살그림 청심모는 떠깎나무만 타고 오른다

오는 봄 초록빛 진흙 돌아 오르면 텅텅 마른 북어 두드러 보푸라기 일곱 음복하러니 목청 고운 산새들 싸리일 저 내리는 서러운 피등에 올라앉아 빈 산을 올려라

순한옥 / 시인협 회원 · 안양시 박달동

'연대' 민명 심민섭

1년에 한번 생활초파일에만 걸려대는 불자

부처님을 믿습니까? 생활초파일을 믿습니까?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가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로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가기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가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빨리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정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0311334-9490, 334-9491 야간: 0311706-3060

우리 가족에게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십시오.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분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당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성광수**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6-4422